

# ‘복불복’ 수능 재연에...수험생 “선택과목, 운에 맡기라고?”

2022학년도 국·수 포함...난이도 제각각에 학생·학부모 분통  
평가원 “유불리 완화 위해 6·9월 모평 분석 후 난이도 적정화”

대입 ‘정시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특정 과목(탐구영역) 선택에 따른 ‘복불복’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탐구 영역 ‘복불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올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국어·수학까지 선택과목제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수험생들의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교육부와 입시업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문·이과 통합과 학습 부담 감축을 위해 국어와 수학에도 2022학년도 수능부터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를 도입한다.

국어는 ‘독서’와 ‘문학’을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해 수능을 보게되며, 수학은 수학 I, 수학II를 공통과목으로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셋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이미 선택과목제를 시행중인 탐구는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 중 문·이과 구분 없이 자유롭게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선 별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현상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실시된 수능에선 사회탐구 9과목 중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나란히 63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표준점수가 가장 높은 사회·문화(71점)보다 8점 낮았다. 표준점수는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을수록 최고점이 낮아진다.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는 수험생이 1문제만 실수 하더라도 1등급을 받지 못했다. 특히 세계지리의 경우 1문제 틀린 학생은 2등급도 받지 못하고 바로 3등급으로 떨어졌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탐구 8과목 중에선 물리학II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62점으로 가장 낮아 최고점이 가장 높은 지구과학 I (72점)보다 10점 낮았다. 물리학II역시 1문제 틀린 학생이 2등급이 아닌 3등급을 받았다.

물리학II에 이어 64점을 기록한 물리학 I 이 두 번째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낮았다.

정시모집에서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은 탐구 과목 점수를 반영할 때 과목 간 난이도를 보정하는 작업을 하지만,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입시업체는 보고 있다.

문제는 선택과목 난이도가 제각각이라 해마다 비슷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과목제가 확대되면 입시 ‘당락’에 과목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당장 올해 수능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올해는 정시 선발 인원이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담감이 더한 상태.

이에 대해 입시 전문가들은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영덕 대학원 학력개발연구소장은 “선택과목 중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유리한데,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는 수능을 쳐봐야 아는 것”이라며 “결국 수험생들 본인이 희망하고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입시 유불리만을 따져 선택하는 현실이 문제”라고 말했다.

‘복불복’ 수능 선택과목을 놓고 고민이 커지는 것은 교육 당국도 마찬가지이다. 난이도 조절에 문제가 없다는 출제기관으로서 해마다 제기되는 선택과목 복불복 논란에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가 (예년과 비교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6월·9월 모의평가를 면밀하게 분석해 선택과목별 난이도를 적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정시 실기시험 앞두고 5일 광주시 동구 한 미술학원에서 수능 정시 미술 실기를 앞둔 수험생들이 시험대비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 고교 퇴학자도, 문신 있어도 “현역 입대 명 받습니다”

### 광주전남병무청 달라지는 병역제도

올해부터 고등학교 퇴학자도 군대를 가야하고, 문신이 있어도 군대를 가야 한다.

5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했다.

지난해까지는 신체등급 1~3급이더라도 고퇴 이하의 학력자들은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시행했지만, 올해부터는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 입대 대상이 된다.

군생활에 학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일찍부터 학교를 중퇴하고 기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기술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종전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것이 올해부터는 현역병 판정이 나오게 된다.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6월부터는 입영 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이 추가돼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색약 있어도 육군 공군 조리병 지원 가능 ▲경제적 취약자 병무응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사회복무요원 1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등도 변경된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집집 대상자들이 변경된 제도를 잘 활용해 자신에게 맞는 병역의 의무를 잘 지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hb@

## 전남 직업계고 주요 기업 취업자 15% 줄어

지난해 공공기관·대기업·금융기관 등 212명 그쳐

지난해 전남 직업계고 출신의 주요 기관과 기업 취업자가 전년 같은 때와 비교해 15%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기관 등에 취업한 전남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예정자 포함)은 212명이었다. 전남에는 특성화고 43개교, 마이스터고 4개교에 5000여 명이 졸업을 앞두고 있다.

이는 2019년 12월 말 기준 총 취업자수 250명과 비교하면 15% 가량 감소한 수치다. 대기업 취업자가 2019년엔 102명었던 반면 지난해에는 61명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직업계고의 취업자 감소세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재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9년 전국 직업계고 취업률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직업계고는 졸업생 5514명 중 2437명이 취업해 44.2%를 기록했다. 전국적인 하락세에 따라 경북(51.6%)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전년도 59.2%에 비해 15% 가량 내려왔으며 취업률 1위를 차지했던 2017년에 비하면 25%나 떨어졌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 대기업 채용 규모가 전년보다 줄어든 게 취업자 수에 영향을 줬다”며 “직업계고 학생들이 우수 취업처에 합격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취업역량 강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 흉터 적고 회복 빠른 최소침습 심장수술 성공

### 조선대병원 정재한 교수팀

조선대병원 흉부외과 정재한 교수 수술팀이 최근 광주지역 최초로 앞 가슴뼈를 열지 않고, 새 판막으로 교체해주는 ‘최소침습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올해로 77세인 양모(여) 씨는 평소 조금만 걸

어도 가슴이 답답하자 조선대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판정을 받았다.

대동맥판막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심장의 대동맥판막이 석회화돼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질환이며,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2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50%에 달하고 돌연사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치료가 꼭 필요하다.

정재한 교수팀은 환자가 고령임을 고려해 염증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술 후 회복이 빠르며 수술 흉터가 적은 최소침습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시간 가량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양씨는 수술 후 6일 만에 퇴원했다.

수술을 집도한 정재한 교수는 “앞으로도 신의료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도 편하게 최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홍 기자 chae@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손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